

제주해녀의 물질기술과 민속지식

서귀포시 법환동 강애심 해녀 인터뷰 - 1

해녀: 강애심(1952년생)

인터뷰 일자 : 2019. 08.

인터뷰 : 좌해경(Q로 기록),

해녀 : 강애심(A로 기록, 법환 태어남, 20세에 결혼, 32세에 물질 배우기 시작)

Q : 그 여기 해녀 협회? 제주 해녀협회는 어떤 일들을 하는 곳입니까?

A : 그 제주도 해녀들이 해야 되는 일을 대신 하고, 또 이제 행사 있을 때 돌아보고, 그냥 그 대행 하는 것 처럼 예, 이런식으로 하고, 하영든 뭐 축제 때 이제 전반적으로 다 이렇게 선두에서 이렇게 하고, 또 일본이나 외국 이제 그 현지에 있는 해녀들하고 교류, 또 우리나라 전국에 있는 해녀들 하고 교류해서 제주 해녀를 널리 알리는 목적에 협회가 이제 그런 일을 하는 거고예

Q : 그 해녀협회가 유네스코에 등재가 되기 전에 결성이 된거지 예?

A : 유네스코 등재 되고, 유네스코 등재 되고 돌아오면서 그 제주도에는 그 때 당시에 어촌 여자 어촌 계장님이 한 십팔명(18명)이 계셨습니다. 그 제가 생각해 ‘그분들하고 친목처럼 이렇게 고생하게 왔다갔는데 그냥 무의미하게 버릴순 없다.’ 도에서는 분명 문화적으로 이렇게 할려고는 하고 있지마는 그래도 저 나름대로 그렇게 해보겠다는 생각하고 도지사님한테 말씀드리고 해서, 갔다와서 이제 여성 어촌계장님들 모이라고 해서 이제 하다 보니까 이제 친목단체가 아니라 협회라는 단체가 떠올라가지고 해서, 저 혼자 힘으로는 그 큰 짐을 감당하기가 좀 버겁더라고예. 당시에 제가 어촌 계장이었기 때문에, 그 어촌계에서 업무를 하는 형식으로 해가지고, 도청 과장님들 머리를 빌어가지고 전과지라든가 이런 거 만들어 달라고 이렇게 보채가지고 만들고 해서, 이렇게 협회가 탄생되고, 그 발기하고, 총회하고, 이렇게 한¹⁾ 지금까지 끌어오는거예. 초대 회장으로예.

Q : 유네스코는 예, 이런 그 단, 제주 해녀문화라면 그것을 이끌어갈 만한 단체가 필요하잖아 예. 그런데 그것을 해녀분들이 하는 게 맞는거 같수다.

A : 제가 생각에는 이제, 현장에 본인이 내가 갔다 왔기 때문에, 그 실감하는 게 그 유네스코에 등재가 되면 어쨌든 뭐, 돈이나 이런 걸로는 크게 나라에 이득은 안돼도, 어쨌든 자기 나라에 자산이거든 마썸예, 아주 문화적으로 해서, 그 문화제가 파괴가 되거나 됐을 때는 유네스코에서 제외된다는 게 사실이잖아 예. 해서 저희는 살아있는 문화고 해서, 또 언젠가는 사라질 위기도 있을 것 같은 생각에 그 협회를 만들어 놓고, 좀 양성하는 쪽으로 이렇게 협력, 저희가 직접 그 협회가 직접 교육시키고 이제 못하지만 이제 그런 쪽으로 좀 유도를 하는 데 앞장서는 그런 거예. 해서

Q : 해녀 회장님은 이 협회 회장님하기 전으로부터 해녀 양성에 관여

A : 예, 제가 어촌 계장 그 어촌 계장에 뛰어들면서 해녀 학교 그 뭐를 힌트를 어디서 얻었냐 하면 한수풀 해녀 학교가 가서 지켜보니까, 거기에는 이제 양성이 아니라 체험으로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라예. 체험, 한번 해보고 싶어서 이렇게 나가고, 그 때 몇기가 했던데 ‘이렇게 하면 안되겠다. 저희는 이제 양성으로 해야 되겠다’ 해서 시하고 도하고 이렇게 해가

1) 한 :해서

지고 해녀 학교 설립해서, 삼기(3기)하고, 어촌계장 마치고, 그 당시에 제가 유네스코 본인으로 갔다 오고 해서 협회 운영하는 거고요

Q : 그 때도 어촌계장은 몇년 하십디가?

A : 사년(4년)

Q : 사년(4년)예?

A : 사년(4년)이 임기우다.

Q : 사년(4년)이 임기라

A : 예

Q : 그 해녀는 몇세부터 작업을 하십디가?

A : 해녀는 제가 삼십이살(32살) 때에, 삼십이살(32살) 때 시작을 했고,

Q : 계속 지금 작업을 하시는 겁니까?

A : 예, 지금까지 죽 이어오는 거고

Q : 회장님은 그러면 법환리에서 태어났습니까?

A : 예. 법환에서 태어나도, 제가 어릴 때에 물질을 유독히 저희 또래들이 다 이제 그 초등학교 갔다오면²⁾ 바다에 가고 이렇게 그 놀이가 그거니까, 이렇게 해도 제 우에로 언니가 한 열살 우에 언니가 하나 있는데, 어머니가 딸을 곱게 키워야 된다고 다리 이렇게 뭐 부쉽지거나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바다로 못 가게 하더라고 우리 어머니가. 저는 바다에 못 갔습니다. 배우지고 못했고 행. 삼십이살(32살) 때, 스물에

Q : 결혼

A : 예, 스물에 시집가고, 스물둘에 아들 낳고, 스물세살에 둘째 아들 낳고, 이렇게 해서 살다가 이제 삼십이살 때 시어머니 따라, 시어머니 따라 물질을 시작했는데 한 오년(5년)은 개구리 춤, 막 그 때 말 그대로 개구리 춤 하고 한 일,이년(1.2년)은 그냥 덕바에서 이렇게 태왁 만들어준 거 옆드려서 놀고 하면 오다가 시어머니가 그 물건 잡아오당 나것더레 이렇게 부여주면 이제 내이름으로 물건을 뜨면 돈이 생기더라고예. 해서 뭔가 자기한테 이득이 생겨야 의욕이 생기는 것 같은 생각에서 ‘저는 절대 물질을 안한다.’고 갔다오면 이제 얼굴에 이렇게 시커멓게 이쪽으로 막 기미가 생기더라고예, 눈³⁾ 쏘 밖으로 해서, 모임이나 동창 모임이나 가면 “왜 얼굴에 지도 그려왔냐?” 이렇게 막 물질은 하는 줄은 모르고, 그 당시만 해도 물질 하는게 상당히 천하게 여겨가지고, 제가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학부형 회의를 하면 그 연년생으로 이제 아들을 낳는데, 큰 애는 학교에서 좀 내노랑게 좀 우뚝 선 이런 형태였고, 또 작은 애는 있는 듯 없는 듯 이제 이렇게 학교생활을 하더라고, 큰아들은 엄마를 학교에 오시는 거를 상당히 희망을 해서 그 학교에 학부모 회의라도 한 번도 떨어지지 않고 모임을 가면 선생님이 그 “뭘 하느냐, 직업이 뭐냐?” 이렇게 하면 “저는 농사짓습니다.” 이렇게 하지 물질한다고 절대 안했습니다. 부끄러워가지고, 물질 그 때만 해도 물 하는 게 상당히 천한 직업으로 느껴 가지고 숨기는 형태였습니다. 경헌디 지금은 뭐 진짜 사람들이 안 좋아 할 만큼 해녀들이 막 이제 이렇게 그 자세를 하는 데 저는 또 그렇게 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해예.

Q : 그 법환리 바다에는 어떤 물건들이 잘 납니까?

A : 법환리는 뭐 제주도 전체적으로 다 똑 같은 물건은 나지만은 그 법환리는 많이 나는 게 소라, 그 범섬하고, 우리 그 조간대 가에 하고 이렇게 상당한 거리인데, 그 아주 잘하시

2)갔다오민 : 갔다오면

3) 눈 : 물안경(수경)

는 그 상군들이 한 오명(5명), 그 다음에 계열이 있어요. 아주 잘하는 분, 그다음 분, 죽가게 이렇게. 백명이면 실력이 백명 다 틀립니다. 아주 잘하는 분들이 범섬하고, 우리 그 마을 조간대하고, 중간쯤까지 가요. 해서 가뒀다가 해치⁴⁾하는 날은 한 백오십키로(150kg), 뭐 백팔십키로(180kg) 이렇게 소라가 많이 나니까, 법환이 소라가 받아가는 사람들에 의하면 상당히 물건이 좋다고 그추룩⁵⁾ 행⁶⁾ 소라가 많이 나고예, 다음에는 이제, 그 요즘은 전복도 좀 뭐 뜸하게 나는데, 요 중간까지는 전복도 그 아주 많이 나그네 뭐 하루 뭐 그 해녀들 잡으면 한 이백키로(200kg)도 이백팔십키로(280kg)도 나본 적이 있고, 지금도 요번에 성계하는 날 우리 해녀 훈명(1명)는 이 전복을 십키로(10kg) 잡고 나 오더라고예. 해서 전복도 다른 마을에 비하면 하루 해녀들 삼사십명(3,40명) 들어도 하나도 안난다고 하지만 우리는 들면은 하영든 전복이 그 괜찮게 나는 편이라서, 평균은 안해봤지만 저 할 때도 전복을 받아가는 사람이 기피할 정도로 “오늘은 떼지 말아 달라.” 이렇게 할 정도로 전복이 많이 나는 바다고, 뭐 그다음에는 뭐 소라 저 고메기나 이런거는 잘 안나고, 해삼도 좀 낱이 나는 편이에요. 해삼도 그 내가 어촌계장 하기 직전에는 하루 막 천오백키로(1,500kg)도 난 적이 있었습니다. 해서 그 때 막 난리나고 이렇게 했었는데,

Q : 바다 어장이 상당히 좋다 예

A : 예, 제가 탄 사람, 탄 마을에는 작업을 안 해봤지만 얘기 들어보민⁷⁾ 그 법환 바다는 상당히 바다가 좋은 걸로 이렇게 생각이 들어지고, 바다 밑에도 형성이 잘되어 있어요. 이렇게 지상이 바다는 어떻게 생겼냐면 이 지상에 모래천이 이렇게 있으면 바다도 똑 같이 모래천이 있어요. 또 이렇게 산이 있으면은 그 밑으로 바다 쪽으로 쪽 가면 그 형태의 그런 산 같은 게 있어요. 이런 거 큰 산은 아니지만 작으맏게 이렇게 언덕 바위가 있으면 그 밑에 가면 언덕 바위가 있고, 이렇게 바다가 지상같이 비슷하게 이렇게 형성되어 있다고 생각 하시면 이해가 아마도 빠를 겁니다. 해서 중문 백사장을 제가 예를 들면, 중문 백사장이잖아요. 모래 바다잖아요. 밑으로 쪽 다 모래예요 모래. 중간 중간에 이렇게 납작하게 돌 조금씩 있는데 그 쪽에는 뭐 물건 이서봐야⁸⁾ 얼마 있지도 않고, 그래서 그런 데는 어장이 작은 데고, 우리는 상당히 고기도 많이 나고, 그 뭐 고기배들도 한 여나흔 척 있는데, 한 열척(10척)쯤 있는데, 가면 잘하시는 분은 한 삼사십만원(3,40만원) 또 뭐 못해도 한 십만원(10만원) 이렇게 그 매일 매일 가서 범섬 옆에 보민 고기 어장도 아주 좋은 어장서 법환 바당은 어쨌든 간에 뭐

Q : 이렇게 패류가 많으려면 해조류도 많습니까? 먹이가 되는

A : 해조류가 많아야 서식이 잘되지 예, 아마도 예?

Q : 예

A : 뭐, 생물이기 때문에 사람도 목숨 있는 사람, 목숨이 있기 때문에 먹어야 살기 때문에 것도 생물이, 목숨이라서 먹어야 사니까 이제 중간 밑으로 가면 바다가 아주 해조류도 형성이 잘되어 있고, 해서 그 조간대는 뭐 해조류 없어진지가 한참 됐어요. 왜냐면 오염 때문에, 오염 때문에 그런 거 같은 생각이 드네, 나가 연구는 안 해봤지만

Q : 과거에 미역 작업 허던⁹⁾ 생각 남수과¹⁰⁾?

4) 해치 : 해경.허채(解警.許採) : 금채 했던 해산물을 캐기 시작 하는 날

5) 그추룩 : 그렇게

6) 행 : 해서

7) 들어보민 : 들어보면

8) 이서봐야 : 있어도, 있어 보아도

A : 예, 미역. 올해도 미역이, 해마다 미역이 시원찮게 나옵니다. 올해는 미역이 안 날줄 알았는데, 막 늦게 나가지고, 미역 채취해가지고 해녀분들 돈도 많이 벌고 해서, 너무 많이 해버리면 소라 먹을 양이 없다 해서 중간에 그만 뒀는데, 저는 이제 협회 일 바쁘고 해서 미역 작업 못했습니다마는 작년에는 이런 덕에까지 미역이 너무 많이 나가지고, 물질을 못할 만큼 이렇게 많이 났고, 어쨌든 다른 데는 먹을 미역도 안 난다는데 우리 바다는 먹을 미역이랑 말양 거천 못할 만큼 많이 나는 바다우다.

Q : 거기는 해삼이 날 수 있는 게 어떤 환경이라도 있습니까?

A : 거난 제가 볼 때는 바다가 이렇게 세 쪽으로 나뉘 보면은 그 해삼이 많이 나는 바다는 그 아주 이렇게 돌이 큰돌, 작은돌 이렇게 다양하게 형성이 바다에 뒀어요. 그냥 쪽 허게 형태가 똑같은 돌로 이렇게 작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큰돌, 작은돌 이렇게 해서 중간에 또 모래,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모래 형성되고, 풀이 형성되고, 풀은 해초류지예? 해초류가 형성되고 이런 데는 그래서 그 바다는 해삼이 많이 나는 바다로 해서 우리가 양식 바당으로 자연적으로 이렇게 양식을 하는 데, 해서 일년내내 해녀들이 두 번씩 돌아가면서, 이제 가을에 저 봄에서부터 가을까지는 그 물 때대로 다섯물에서 열한물까지만 지키고, 또 여름에는 계속 날 구별 없이 하고, 왜냐면 여름에는 해엄치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막 따 와버리고, 그 때는 또 소라나 전복 금채 기간이기 때문에 가뉘야 되니까, 그 바다 하나는 관리하는 바다로 하고, 뭐 다른 바다는 그냥조간대로 개방하고 이렇게.

Q : 그러면 미역이나 뭐 우미 같은 거는 없고?

A : 우미, 우미는 예, 옛날에는 내가 물질할 때 보민 그냥 웅덩이 같은데 조금씩 뜯어 먹을 정도로는 나더라고예. 경헌디 지금은 그것도 마저도 안 나.

Q : 음, 우미도 없고예. 문어는 뭐 거기서도 잡히겠지예?

A : 문어가예, 그전에는 문어가 너무 많이 났었는데, 문어가 전혀 뭐 한두명, 해서 그거는 포획하는 사람들에 의해가지고 막 포획해버리는 걸로 제가 알거든예. 해서 그런거를 내가 방지, 어촌계장만 할 때만 해도 내가 그걸 단속을 했기 때문에, 헌데 지금은 지금 뭐 기록할 필요는 없습니다마는 지금 어촌계장은 그런 분들하고 이제 남자기 때문에 막 같이 공유를 하기 때문에 이제 뗏마들 해가지고 요번에도 보니까 뭐 수도 없이 잡는 걸 내가 보았는데도 이게 뭐 싸움하기 싫어서 나도 놔두기도 했는데, 그 개인에 의해서 지상에서 포획을 해버리기 때문에 해녀분들은 잡는 게 불과 한두마리, 달아 두면.

Q : 회장님은 그디 바다밭을 다 아시겠네

A : 네, 다 압니다.

Q : 네, 대강 그 이름도 있습니까?

A : 예, 이름도 있습니다. 앞바당, 뭐 망다리바당, 동바당. 이렇게 세가지(3가지)로. 동쪽에는 동바당, 중간바당을 이제 망다리바당, 예 부두쪽 있는 바다거든예. 해서 바다가 또 앞에 해군기지 인근에 붙어 있는 바당 앞바당. 해서 저쪽 그 서쪽으로 가면 크게 이렇게 거기가 그 지상에 보면 크게 그 커피숍들이 형성 되고 헌데 큰 영장¹¹⁾답은데 있어요. 해서 바다가 또 그렇게 생겼어요. 해서 거기 저 그 여 보고, 그 여 보고 뭐라고 하나면 ‘섯다움’. ‘서쪽의 담이다’ 이 얘기라예.

9) 허던 : 하던

10) 남수과 : 납니까? 예)

11) 영장(=돌영덩, 영덕, 영) : 주로 바닷가 절벽 밑에 돌들이 안으로 파여 굴처럼 되어 거친 곳. 낭떠러지

Q : 첫담?

A : 으, 첫담. 계난 이제 사람들이 말을, 이제 옛날말은 늘려서, 요즘은 줄영 근지만 옛날은 늘려서 근기 때문에 첫다음. 이제 동쪽으로 오면은 이제 또 우리 탈의장 있는 쪽에 보면 또 그렇게 생겨 있는 게, 탈의장 쪽에 있는 데가 이렇게 크게 돌이 그 섬처럼 있잖아예. 해서 딱 것처럼 생겨가지고 거기 오면 ‘동다음’.

Q : 음

A : 동다음, 경험니다¹²⁾.

Q : 그 담이라면 어떤 식으로 되어있는 거죠?

A : 그니까 그

Q : 바다에서 담은

A : 담은 돌이라는 뜻이잖아예? 해서 어떻게 생겼냐면

Q : 담은 쌓여있는 거

A : 쌓여 있는 게 아니고 그냥 박혀 있는 것도 있고, 둥글어 다니는 것도 있고, 지상에 있는 것처럼 똑 같아요. 지상에 돌 둥글어 다니는 것처럼. 발담 둥글어 다니는 것처럼. 발담은 뭐 이렇게 진열하니까 그렇지마는 너저분하게 널어진 디¹³⁾ 있잖아예. 딱 그 거 계산하면 돼예.

Q : 담들이, 거기에 해산물이 막 붙어 잇어마썸[이서마썸]¹⁴⁾?

A : 사이사이에 이렇게

Q : 사이사이

A : 사이사이에도 고, 이제 모살¹⁵⁾ 있는 데도 나오고. 돌에도 이렇게 붙어 있고.

Q : 뭐 막 크게 영이 있거나 이런

A : 영도 있습니다. 영도 있어. 예. 해서 우리 산에 강¹⁶⁾ 보면 작은 굴도 있곡, 이렇게 있잖아 예. 그거 이렇게 생각하면 돼예. 책상 아래 굴처럼 돼 있고, 이것이 돌이다 하면 박혀 있는 돌도 자연적으로 박혀 있는 돌도 있고, 굴러 다니는 돌도 있고, 그 사이에 잔돌들도 이렇게 박아져 있고. 해서 이런 영 영 있던 데는 이렇게 보면 전복도 이제 탁탁 붙어 있고예. 뭐 고기도 영덕에 막 많이 살고, 그렇게.

Q : 농사도 짓습니까?

A : 예

Q : 뭐 과수원 허는 거 잇우과[이수과]?

A : 예

Q : 바다일 하고 농사일 비교하면 어떤 점이 차이가 나는 건고예?

A : 그니까 이제 밧디¹⁷⁾는 내가 자유롭게 숨을 쉬고, 두 발로 걷고, 먹고 싶을 때 먹고, 이렇게 뭐 자유자재로 하는 게 지상에서의 농사일이고, 바다에서는 그렇게 못합니다. 왜냐면 이제 이변의 세상을 들어가기 때문에, 또 가서 네,다섯시간 걸어 다니면서 하는 게 아니라 이제 거꾸로 생활을 하거든요. 지상에서는 두발로 걸지만 거기에서는 발, 머리가 먼저 들어가는 형태를 네,다섯시간 하다보니까 위도 거꾸로 해야 되고, 모든 이제 생리 현상이

12) 경험니다 : 그렇습니다.

13) 널어진 디 : 널어진 곳

14) 잇어마썸[이서마썸] : 있어요

15) 모살 : 모래

16) 강 : 가다

17) 밧디 : 밭에

거꾸로 요렇게 되는 형태라가지고, 아침에 이제 밥도 많이 먹으면 안 되고, 그런 생활을 네,다섯시간 하고 나옵니다.

Q : 그 '수압은 전혀 인지가 안된다' 라고 말씀을 하시던데예. 그래도 물속이기 때문에 수압이 인지 수압이 있지 안합니까?

A : 아우, 수압 인지 안되는게 아니라 인지 됩니다. 그 사람 구조는 똑같은데 사람 형태에 따라가지고, 그 어떤 사람은 이메다(2m)만 들어가면 수압으로 머리도 땡기고, 귀도 땡기고, 이 물도 몸도 차서 들어가지 못해. 막 땡겨서, 이제 딱 이렇게 머리도 위에서 뭐로 막 묶어그네 막 땡기는 것처럼 수압이 막 느껴지거든요. 우리도 심삼메다(13m)를 들어가면은, 경헌디 심삼메다(13m)는 뭔지 모르지만 제가 그 어촌계장 할 때 배를 가요, 배가. 경허민 배가 떨어져서 작업을 하면서 “배가 몇 메다냐 보십시오” 하면 “여기 심삼메답니다. 팔메답디다. 칠메답디다.” 이렇게 하거든요. 해서 제가 범섬 갔을 때 배로 재 보라고 해서 심삼메다(13m)에서 물질을 할 수 있겠다 물질은 거기서 계속 했거든요, 거기서. “여기 몇 메단지 보십시오.” 하니까 심삼메다(13m)라고 해서 ‘아, 십오메다(15m)까지 들어갈 수 있겠구나.’ 이렇게 했는데 저도 심삼메다(13m) 이상만 들어가면은 딱 귀도 땡땡 땡땡 이렇게 하면서 하고, 머리도 빠개지는 것처럼 이렇게 해요. 거민 이제 “콩” 코로 콩 불거든마썸. 물속에서, 제가 콩 이렇게, 해녀들은 노하우가 있어가지고 물속에서 “콩, 콩” 이게 숨쉬는 거라마썸. “콩” 하면 이게 열린다 해서 들어가고, 이렇게, 그 수압 없는 게 아니라 수압이 있습니다. 앞으로 더이상 들어갈 수 없는 자기만의 그 수압을 느낄 수 있는 게 인지가 됩니다. 몸에.

Q : 그 같이들 작업 들어가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그 자기만 작업하다 보면 떨어져있으면 ‘내가 어느 위치에 와 있다’ 라는 건 어떻게 인지합니까?

A : 그거는 그냥 눈으로 보면 이렇게 ‘아, 여기가 어디구나’, 우리는 범섬이 있어가지고, 큰섬하고 작은 섬이 이제 어느 지점 오면 벌어지고, 어느 지점 가면 막아지고, 이렇게 겹치고 하거든요. 해서 ‘아, 지금은 어느 지점 왔구나.’ 저 우리는 범섬쪽으로 하는 거고, 또 밑에 돌이, 밑에 여가, 여가 ‘어느 여에는 어디까지 와졌구나.’ 이게 이 보통 사람들은 막 밑에 가는 사람들은 범섬으로 그렇게 인지도 하지만, 그 보통 해녀들은 물속에 여로 다 하거든요. 해서 만약에 여기 책상이다 허민 아 내가 여기 책상을 넘어가면 물이 좀 더 세가 가거든마썸. 물이 똑같이 가는 게 아니라 한 카트 올라오면 물이 덜 가고, 한 카트 내려가면 물이 더 가고, 이런게 있기 때문에 ‘아, 이여를 넘어가면 안되겠거니’ 이렇게 해서 그거를 보고 이제 사람들이 더 내려가지 않고 이제 자기만의

Q : 그것도 중요한 얘긴데예. 어떤 곳은 물이 막 빨리 흐르기 때문에 그쪽에는 가지 안하고 주의하는 습성이 있습니까?

A : 예, 경험니다. 저기 여기서 물질을 할 때는 물이 뭐 물이 오십프로(50%) 간다 하면 여기는 물건이 없으니까 더 내려가서 잡고 싶다 해서 또 한, 요쪽에 한파트 더 내려가면 물이 짙 가거든요. 그렇게 하니까 물건을 많이 잡으려고 가도 실력이 좀 떨어지거나 나이가 들거나 하면 못가는 게 요쪽에 있는 바다. 이렇게 해서 물 때에 따라서도 그렇게 할 수는 있어[이서]예 물 때 따라도. 뭐 한 열네물(14물), 열다섯물(15물), 한 너물(4물)까지 이렇게는 물때가 막 좋으니까 그렇게 막 안가지만 경헌디 가을에나 이제 성계 할 유월에나 이변이 생길 때도 많습니다. 이제 왜냐면 물이 안갈 날잔데도¹⁸⁾ 엄청나게 넷물처럼 갈 때가 있어요. 그 어느 때는 닻을 낚는데 떼지 못하고 그냥 사람들 휘어서 올라온 적도 한

18) 날잔데도 : 날짜인데도

번 있어난예.